

Part 2. 소설

2012학년도 수능 4p
1 ⑤ 2 ② 3 ② 4 ⑤

난이도 하 ●○○○

①	②	③	④	⑤
N/A	N/A	N/A	N/A	N/A

1. 위 글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할 때, 다음 중 가장 뒤에 올 것은? [1점]

- ① '창섭'이 '아버지'에게 계획을 말한다. (= 2)
- ② '아버지'가 다시 개울로 나간다. (= 3)
- ③ '장정'들이 다릿돌을 올려놓다. (= 4)
- ④ '어머니'가 '창섭'을 맞이하다. (= 1)
- ✓ ⑤ '아버지'가 점심상을 받다. (= 5)

“웬일인데 어째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 (=1)

(중략)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버지는 이전에 개울에 계시다가, 방금 집으로 들어오심)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2)

(중략)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두 좀 생각해 봐야 대답하겠다.”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3), 떨어졌던 다릿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4)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5)

CODE : 장면 간 관계

① '창섭'이 '아버지'에게 계획을 말한다.
↳ 두 번째 내용이다.

CODE : 장면 간 관계

② '아버지'가 다시 개울로 나간다.
↳ 세 번째 내용이다.

CODE : 장면 간 관계

③ '장정'들이 다릿돌을 올려놓다.
↳ 네 번째 내용이다.

CODE : 장면 간 관계

④ '어머니'가 '창섭'을 맞이하다.
↳ 첫 번째 내용이다.

CODE : 장면 간 관계

⑤ '아버지'가 점심상을 받다.
↳ 다섯 번째 내용이다.

난이도 중 ●●○

①	②	③	④	⑤
N/A	N/A	N/A	N/A	N/A

2.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창섭'은 자아로서의 논리를 통해 세계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인물이다.
- ✓ ② '아버지'는 자아로서의 완고한 성격을 세계에 대해서도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 ③ 자아로서의 '창섭'은 세계의 부정적 속성들을 들추어 고발하고 있다. → 아버지
- ④ 자아로서의 '아버지'는 '창섭'과 '어머니'의 대립과 갈등을 증재하고 있다.
- ⑤ 자아로서의 '어머니'는 자신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아와 갈등하고 있다.

<보 기>

소설 속의 모든 인물은 자아이면서 동시에 세계의 일부이다. 자아를 작품 속에서 행동하는 주체라고 하면, 그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은 세계가 된다. 이러한 자아와 세계의 대립과 갈등으로 전개되는 것이 서사의 본질이다.

<보기 분석>

1. 소설 속 모든 인물은 '자아'이면서, '세계'의 일부이다.
2. 이때, '자아'와 '세계'의 대립으로 전개되는 것이 소설의 본질이다.

CODE : 세계의 구성

- ① '창섭'은 자아로서의 논리를 통해 세계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인물이다.

↳ '창섭'은 자아로서의 논리를 통해 세계인 아버지와 계속 갈등하고 있으며, 해소되지 않는다.

CODE : 세계의 구성

- ② '아버지'는 자아로서의 완고한 성격을 세계에 대해서도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아버지: "나 죽건 그 다리루 건네다 물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중략)

아버지 : "돈 있다구 땅이 똬지두 모르구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기만 하는 사람들(like 창섭), 돈놀이처럼 번리만 생각허구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않구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like 창섭),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루밖엔 뵈지 않드라."

↳ '아버지'는 자아로서의 완고한 성격을 세계인 창섭에게도 유지하고 있다.

CODE : 세계의 구성

- ③ 자아로서의 '창섭'은 세계의 부정적 속성들을 들추어 고발하고 있다. → 아버지

아버지 : "돈 있다구 땅이 똬지두 모르구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번리만 생각허구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않구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루밖엔 뵈지 않드라."

↳ '창섭'이 아니라 '아버지'가 세계의 부정적 속성을 들추어 '고발'한다.

<설명 보강> '부정적 속성 = 돈만 밝히는 사람들이 많음'이다.

CODE : 세계의 구성

- ④ 자아로서의 '아버지'는 '창섭'과 '어머니'의 대립과 갈등을 증재하고 있다.

어머니: "웬일인데 어째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
창섭: "오늘루 가야겠어서 아무두 안 데리구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루 갈 걸 뭇 허 오누?"
창섭: "인전 어머니서건 서울로 모셔 갈 채빌 허러 왔다우."
어머니: "서울루! 제발 아이들허구 한데서 살아 봤음 원이 없겠다."

↳ '창섭'과 '어머니' 사이에는 대립 및 갈등이 없다.

CODE : 세계의 구성

- ⑤ 자아로서의 '어머니'는 자신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아와 갈등하고 있다.

<여휘 보강> 자신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아와 갈등 = 내적 갈등

↳ '어머니'가 자신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아와 갈등하는 모습은 없다.

<설명 보강> 이 소설에서 내적 갈등을 하는 인물은 '창섭'이와 '아버지'다.

1. 창섭이의 내적 갈등
'이런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나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아버지의 내적 갈등
'점심이나 먹어라. 나두 좀 생각해 봐야 대답허겠다.'

난이도 중 ●●○

①	②	③	④	⑤
N/A	N/A	N/A	N/A	N/A

3.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려는 계획을 통해, 이해관계에 **얽매어** **아** 않는 ‘창섭’의 진심이 드러난다.
- ✓ ②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나열함으로써, ‘창섭’의 계획이 **일**목 **요**연하게 전해지는 효과가 생긴다.
- ③ 시국 탓에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해, ‘창섭’이 현실을 대하는 **태도**와 **원인**이 드러난다.
- ④ 건물의 일부에 직원 합숙실을 **두**려는 **계**획을 통해, **배려**심 **많**은 ‘창섭’의 성격에 개연성이 더해진다.
- ⑤ 자신의 의사를 전하는 ‘창섭’의 말투를 **실감** **나**게 **표**현하여, ‘아버지’를 대하는 ‘창섭’의 태도를 제시한다.

CODE : 세계의 구성

①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려는 계획을 통해,

한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고 **서울로 오**는 것이 **순리**인 것

↳ 창섭은 부모님을 서울로 모시려고 하고 있다.

CODE : 세계의 구성

이해관계에 **얽매어** **아** 않는 ‘창섭’의 진심이 드러난다.
→ **얽매인**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 창섭이의 진심은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다. 진심은 아버지의 땅을 팔아 자신의 병원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즉 ‘이해관계’에 얽매인 인물이다.

CODE : 세계의 구성

②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나열함으로써 ‘창섭’의 계획이 **일**목 **요**연하게 전해지는 효과가 생긴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얽한 것**, 얽하기는 하나 삼만 이천 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일만 오천 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준비하는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삼만 이천 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대야 일 년에 고작 삼천 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일 년에 만 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나열하고 있다.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를 나열하면 계획이 **일**목 **요**연하게 전해지는 효과가 생긴다.

CODE : 세계의 구성

③ 시국 탓에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해,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인 것

↳ 시국 탓에 건물 신축은 불가능하다.

CODE : 세계의 구성

‘창섭’이 현실을 대하는 **태도**와 **원인**이 드러난다.

↳ 여기에서 ‘창섭’이 현실을 대하는 ‘태도’가 드러난다고는 볼 수 있으나, 태도의 ‘원인’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창섭이가 현실을 대하는 태도의 원인은 지문 전체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보통 태도의 원인은 어릴 때의 경험들로부터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설명 보강〉 ‘창섭이 현실을 대하는 태도의 원인’이라 하면, 창섭이가 일명 돈미새가 된 계기 등이 나와야 한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 1학년 때 비트코인을 해 큰 돈을 벌어서 돈의 소중함을 모른다던지 등의 계기가 나와야 한다.

CODE : 세계의 구성

④ 건물의 일부에 직원 합숙실을 **두**려는 **계**획을 통해,
→ **입원실로 바꾸려는 계획**

삼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미었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에 **용이**한 것

↳ 합숙실은 원래 건물에 있던 것이고 이것을 오히려 **입원실**로 바꾸려는 계획을 세운다.

CODE : 세계의 구성

배려심 **많**은 ‘창섭’의 성격에 개연성이 더해진다.
→ **이해**관계를 **따**지는

↳ 창섭이는 이해관계를 따지는 성격이다.

CODE : 세계의 구성

⑤ 자신의 의사를 전하는 ‘창섭’의 말투를 **실감나게 표현하여**,
 ↳ [A]는 창섭이 말한 내용을 작가가 요약하여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실감나게 표현하지 않는다. 본래 실감나게 표현하려면 “ ” 가 있어야 한다.

<설명 보강> 그런데 이는 사실 작가가 일부러 실감나게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창섭이라는 인물에 공감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독자들이 아버지에게 이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CODE : 세계의 구성

‘아버지’를 대하는 ‘창섭’의 태도를 제시한다.
 ↳ 일단 창섭이의 말투가 어떤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를 대하는 ‘창섭’의 태도와, 말투는 서로 관련이 없다.

<설명 보강> 만약 창섭이가 “아버지 저 사업 지금 오지구연~ 지금 투자하면 텐베거 씹가능이구연. 아버지 너무 끈대세연~”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아버지를 대하는 창섭의 태도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 앞에서 예의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난이도 중상 ●●●○

①	②	③	④	⑤
N/A	N/A	N/A	N/A	N/A

4.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창섭’에게 집은 도구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장소애의 대상이 아니다.
- ② ‘아버지’에게 돌다리 는 삶의 추억과 애환이 투영된 장소애의 대상이다.
- ③ 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지’에게 장소애의 대상인 집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 ④ 땅에 애착하는 ‘아버지’의 생각과 행동은 땅에 대한 장소애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⑤ 땅을 장소애의 대상으로 여기는 의식이 두루 퍼져 있는 당시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

<보 기>

‘장소애(場所愛)’는 인간의 안정된 삶을 보호하는 터전인 장소에 애착하는 심성이다. 근대 이전에는 ‘땅’과 ‘집’이 대표적인 장소애의 대상이었으나, 근대 이후 도시 사회에서는 이들이 도구적 대상이나 교환의 대상으로 변질되었다.

<보기 분석>

- 1. 근대 이전에는 땅과 집은 본디 장소애의 대상이었으나,
- 2. 근대 이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주된 생각은 ‘땅 = 돈’이다.

CODE : 서술자의 의도

① ‘창섭’에게 집은 도구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장소애의 대상이 아니다.
 ↳ ‘창섭’에게 집과 땅은 병원 확장을 위한 돈의 수단일 뿐, 장소애의 대상이 아니다.

CODE : 서술자의 의도

② ‘아버지’에게 돌다리 는 삶의 추억과 애환이 투영된 장소애의 대상이다.

아버지: “**넌 그 다리(=돌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나니? 서울루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중략) **내 할아버님 산소에 상돌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구, 내가 천잘 끼구 그 다리루 글 읽으러 땡졌다. 네 어미두 그 다리루 가말 타구 내 집에 왔어.**”

↳ 아버지에게 돌다리 는 삶의 추억과 애환이 투영된 장소애의 대상이다.

CODE : 서술자의 의도

③ 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지’에게 장소애의 대상인 집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아버지: “느르지 눈독에 선 느티나무 할아버님 께서 심으신 거구, 저 사랑 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銅像)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군 험다.”

↳ 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지’의 ‘아버님’께서 심으신 것으로, 아버지는 이를 어른의 동상이나 다름없이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장소애의 대상인 집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CODE : 서술자의 의도

④ 땅에 애착하는 ‘아버지’의 생각과 행동은 땅에 대한 장소애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근심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을 주지 않았고, 소를 두 필이나 매고 일꾼을 세 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전답을 전부 자농(自農)으로 버티어 왔다.
(중략)
돈 있다구 땅이 뭔지두 모르구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번리만 생각허구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았구 현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루밖엔 뵈지 았드라

↳ ‘아버지’는 ‘땅’을 ‘인간의 안정된 삶을 보호하는 터전’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 땅에 대한 장소애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CODE : 서술자의 의도

⑤ 땅을 장소애의 대상으로 여기는 의식이 두루 퍼져 있는 당시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 → 여기지 았는

↳ ‘창섭’은 땅을 도구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고, ‘어머니’도 서울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인물로 나와 있다. ‘아버지’ 혼자만 땅을 장소애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2:1이므로, 땅을 장소애의 대상으로 여기는 의식이 두루 퍼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6학년도 수능

10p

1 ⑤ 2 ⑤ 3 ① 4 ③

난이도 하 ●○○○

①	②	③	④	⑤
2%	2%	3%	3%	90%

1.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온 씨와 허명두는 서로에게 질문을 하며 상대의 반응을 살폈다.
- ② 허명두는 온 씨의 발언에 불쾌해하며 과거에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떠올렸다.
- ③ 온 씨는 허명두와 대화를 나누며 상대에 대한 자신의 짐작이 맞았다고 생각하였다.
- ④ 온 씨는 상대의 행위를 평가하는 표현을 반복하며 허명두에게 꾸미고 있는 일을 그만두라고 경고하였다.
- ⑤ 온 씨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자 **허명두는 애들러 말하여 상대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었다.**

CODE : 세계의 구성

① 온 씨와 허명두는 서로에게 질문을 하며 상대의 반응을 살폈다.

온 씨: “실례지만 선생께서는 8·15 직후에 무슨 청년당 일에……?”
 온 씨의 어조가 진지한 것이 아니었다면 허명두 씨는 욕설을 퍼부어 네가 무슨 사찰 요원이나고 따질 뻔하였다. 하지만 허명두 씨는 오랜만에 증오가 되살아나서 온 씨를 냉담하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허명두: “8·15 직후라? 그때 참 별의별 못난 것들이 제 세상 만났다고 착각하며 날뛰었지요.”
 온 씨: “역시 그러셨구만.”
 허명두: “**왜? 나를 본 적이라도?**”

↳ 온 씨와 허명두는 서로에게 질문을 하며 상대의 반응을 살핀다.

CODE : 세계의 구성

② 허명두는 온 씨의 발언에 불쾌해하며 과거에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떠올렸다.

온 씨의 어조가 진지한 것이 아니었다면 **허명두 씨는 욕설을 퍼부어** 네가 무슨 사찰 요원이나고 따질 뻔하였다. 하지만 허명두 씨는 **오랜만에 증오가 되살아나서** 온 씨를 냉담하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허명두: “8·15 직후라? **그때 참** 별의별 못난 것들이 제 세상 만났다고 착각하며 날뛰었지요.”

↳ 허명두는 온 씨의 발언에 불쾌한 마음이 들어, 욕설을 퍼붓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증오가 되살아나며 8·15 직후를 떠올리고 있다.

CODE : 세계의 구성

③ 온 씨는 허명두와 대화를 나누며 상대에 대한 자신의 짐작이 맞았다고 생각하였다.

온 씨: “실례지만 선생께서는 8·15 직후에 **무슨 청년당 일에……?**”
 (중략)
 온 씨: “**역시 그러셨구만.**”
 허명두: “**왜? 나를 본 적이라도?**”
 온 씨: “많이 보았지요. 지금도 많이 보고 있고, **이봐요. 허 선생. 더 이상 서툰 짓은 하지 마시오. 당신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다들 알고 있소.**”

↳ 온 씨는 허명두와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짐작이 맞았다고 생각했다.

CODE : 세계의 구성

④ 온 씨는 상대의 행위를 평가하는 표현을 반복하며 허명두에게 꾸미고 있는 일을 그만두라고 경고하였다.

온 씨: “많이 보았지요. 지금도 많이 보고 있고, 이봐요. 허 선생. **더 이상 서툰 짓은 하지 마시오.** 당신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다들 알고 있소. 그런데 이제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날뛰던 시대는 서서히 지나가고 있는 거요. 우리의 피땀으로 이룩한 독가촌을 가지고 **서툰 짓을 벌이려고 하다가는 당신이 온전치는 못할 거요.**”

↳ 온 씨는 허명두의 행동이 ‘서툰 짓’이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꾸미고 있는 일을 그만두라고 경고하고 있다.

CODE : 세계의 구성

⑤ 온 씨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자 **허명두는 애들러 말하여 상대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었다.**

온 씨: “많이 보았지요. 지금도 많이 보고 있고, 이봐요. 허 선생. 더 이상 서툰 짓은 하지 마시오. 당신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다들 알고 있소. **그런데 이제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날뛰던 시대는 서서히 지나가고 있는 거요.** 우리의 피땀으로 이룩한 독가촌을 가지고 서툰 짓을 벌이려고 하다가는 **당신이 온전치는 못할 거요.**”
 허명두: “나한테 협박을 하는 것이라면…… **그런 협박은 하나도 무섭지 않으니 어디 한번 해볼 대로 해보라지.**”

↳ 온 씨가 먼저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고, 허명두는 여기에 맞받아치고 있다.

난이도 중하 ●●○○

①	②	③	④	⑤
4%	5%	4%	2%	85%

2.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형성된 과정은 ㉡가 주변에 전해진 것과 **무관하다**.
- ② ㉠가 처음 퍼진 시점은 ㉡가 처음 퍼진 시점보다 **앞선다**.
- ③ ㉠는 ㉡로 인한 인물 간의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④ ㉠가 주변에 빠르게 확산된 것은 ㉡가 **귀짓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 ⑤ ㉠에는 ㉡를 처음 퍼뜨린 인물이 ㉡와 관련하여 찾아가 만난 인물에게 확인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CODE : 장면 간 관계

① ㉠가 형성된 과정은 ㉡가 주변에 전해진 것과 **무관하다**.

그리고 나서 온 씨는 가 버렸는데, 독가촌 일대에는 금방 그 소문이 돌 대로 돌았다. 온 씨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이야기를 퍼뜨렸기 **때문이었다**.

(중략)

그러다가 그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온 씨와 만나 언쟁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지만**, 온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지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 ㉡가 퍼졌었기 때문에 온 씨가 허명두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온 씨가 ㉠를 퍼뜨리고 다녔다.

CODE : 장면 간 관계

② ㉠가 처음 퍼진 시점은 ㉡가 처음 퍼진 시점보다 **앞선다**.

↳ ㉡가 퍼졌었기 때문에 온 씨가 허명두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온 씨가 ㉠를 퍼뜨리고 다녔다.

CODE : 장면 간 관계

③ ㉠는 ㉡로 인한 인물 간의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가 퍼졌었기 때문에 온 씨가 허명두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온 씨가 허명두와 만나서 한 얘기가 바로 ㉠이다.

CODE : 장면 간 관계

④ ㉠가 주변에 빠르게 확산된 것은 ㉡가 **귀짓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허명두 씨가 관청을 들락거리고 야금야금 집들을 사두게 된 것이 이 **때문이었다**.

(중략)

그리고 나서 온 씨는 가 버렸는데, 독가촌 일대에는 금방 그 소문이 돌 대로 돌았다. 온 씨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이야기를 퍼뜨렸기 **때문이었다**.

↳ ㉠가 빠르게 확산된 것은 그저 온 씨가 계속 퍼뜨리고 다녔기 ‘때문이다’. 참 거짓과 상관이 없다. 또한 허명두씨가 집을 사게 된 것은 사실이므로, ㉠ 자체는 ‘사실’이었다.

CODE : 장면 간 관계

⑤ ㉠에는 ㉡를 처음 퍼뜨린 인물이 ㉡와 관련하여 찾아가 만난 인물에게 확인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허명두 씨가 관청을 들락거리고 야금야금 집들을 사두게 된 것이 이 **때문이었다**.

(중략)

그리고 나서 온 씨는 가 버렸는데, 독가촌 일대에는 금방 그 소문이 돌 대로 돌았다. 온 씨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이야기를 퍼뜨렸기 **때문이었다**.

(중략)

그러다가 그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온 씨와 만나 언쟁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지만**, 온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지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 ㉠를 처음 퍼뜨린 인물은 온 씨다. 그는 ㉡와 관련하여 허명두를 직접 찾아가 만났으며, 이를 직접 확인 받는다. 이로써 주민들이 피담으로 이룩한 독가촌을 상대로 이익을 취하려는 ‘서툰 짓’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퍼뜨리게 된다.

난이도 중 ●●○

①	②	③	④	⑤
67%	18%	8%	5%	3%

3. '독가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① 고속도로가 연결될 것이 알려진 후 외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곳이다.
- ② 허명두가 지목 변경으로 기득권을 부여받아서 집들을 사들이고 있는 곳이다.
- ③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왔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곳이다.**
- ④ 온 씨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농업 중심의 기존 생활양식을 **바꾸려** 하는 곳이다.
- ⑤ **관광지**로서의 좋은 조건을 갖추게 하려고 마을 사람들이 피땀 흘려 노력한 곳이다.

CODE : 세계의 구성

- ① 고속도로가 연결될 것이 알려진 후 외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곳이다.

이러한 사단이 벌어지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심심산골**, 불모의 황무지였던 **이곳 독가촌 일대가 하루아침에 각광을 받는 지대로** 둔갑이 되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특히 독가촌은 오늘의 달라진 인문지리의 환경으로 따져 보았을 적에 **고속도로와 접속이 되게 될 교통 요충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관광지로서의 좋은 조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 원래 독가촌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산골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각광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고속도로와 연결이 될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CODE : 세계의 구성

- ② 허명두가 지목 변경으로 기득권을 **부여받아서** 집들을 사들이고 있는 곳이다.
↳ **부여 받을 것을 예상하고**

행정 당국은 지목(地目) 변경은 해 두었지만 서류상으로는 그 모든 가옥들이 무허가 주택이나 다름없었으며, 따라서 집들의 매매는 권리금에 다름이 아니었다. **물론 불하를 내게 될 적에는 이미 지어진 집 임자에게 기득권을 부여하게 될 터이었다.** 허명두 씨가 **관청을 들락거리고 야금야금 집들을 사두게 된 것이 이 때문이었다.**

<어휘 보강>

- 1. 불하 :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넘기는 일
- 2. 불허 : 허락하지 않는 것

↳ 불하가 될 때, 그때 집 임자에게 기득권이 부여되게 된다. 허명두는 이를 미리 '예상'하고 집들을 사들이고 있었다.

CODE : 세계의 구성

- ③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왔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곳이다.**
↳ **기에 이제는 경제적으로 자립한 곳**

전국 각처에서 찾아든 사람들이 이곳 독가촌에 정착하여 **그럭저럭 안정을 얻을 만하게 된 이즈음** 이곳이 외부의 자본에 의해 관광지로 돼 버린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또 어느 곳으로 찾아들어 가 얼마만큼 **방황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러니** 두메산골이었던 곳을 **피땀 흘려 오늘의 독가촌으로 개척해 온** 이곳 사람들이 이 마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틀린 말일 수는 없는 것이었다. 더구나 **농촌 부락으로서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터전도 굳혀 놓은 게 사실이었다.**

↳ 개척된 이래로, 독가촌은 이제 농촌 부락으로서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게 되었다.

CODE : 세계의 구성

- ④ 온 씨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농업 중심의 기존 생활양식을 **바꾸려** 하는 곳이다.
↳ **고수하려**

전국 각처에서 찾아든 사람들이 이곳 독가촌에 정착하여 **그럭저럭 안정을 얻을 만하게 된 이즈음** 이곳이 외부의 자본에 의해 **관광지로 돼 버린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또 어느 곳으로 찾아들어 가 얼마만큼 **방황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러니** 두메산골이었던 곳을 **피땀 흘려** **오늘의 독가촌으로 개척해 온** **이곳 사람들이 이 마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틀린 말일 수는 없는 것이었다.**

↳ 온 씨는 이 마을이 농업마을로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해졌는데, 갑자기 관광지로 바뀌면 사람들이 방황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 마을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CODE : 세계의 구성

- ⑤ **관광지**로서의 좋은 조건을 갖추게 하려고 마을 사람들이 **피땀 흘려 노력한 곳이다.**
↳ **농업 마을**

전국 각처에서 찾아든 사람들이 이곳 독가촌에 정착하여 **그럭저럭 안정을 얻을 만하게 된 이즈음** 이곳이 외부의 자본에 의해 **관광지로 돼 버린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또 어느 곳으로 찾아들어 가 얼마만큼 **방황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러니** 두메산골이었던 곳을 **피땀 흘려** **오늘의 독가촌으로 개척해 온** **이곳 사람들이 이 마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틀린 말일 수는 없는 것이었다.**

↳ 이 마을이 농업 마을로서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해졌는데, 갑자기 관광지로 바뀌면 사람들이 방황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난이도 중하 ●●○

①	②	③	④	⑤
3%	5%	83%	5%	4%

4. <보기>를 참고하여 ㉠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 : 인물과 상대를 ‘두 종류의 인간군’으로 일반화함으로써 상대와의 인식 차이가 좁힐 수 없는 것임을 드러내어, 상대와 소통이 어렵다는 인물의 생각이 타당한 것처럼 서술하였다.
- ㉡ ㉡ : 마을의 상황을 ‘싸움’으로 주관화함으로써 상대가 추구하는 ‘사리의 옳음’이 싸움에서 이기는 데에 유용하지 않음을 드러내어, 인물의 생각이 타당한 것처럼 서술하였다.
- ㉢ ㉢ : 상황 변화가 ‘안정’을 위협한다는 상대의 생각을 헤아림으로써 변화의 부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무엇이 변화의 원인인지**는 **달라보아**, 인물의 왜곡된 시선이 드러나도록 서술하였다.
- ㉣ ㉣ : ‘실리’를 추구한 측이 언제나 우위를 차지했다며 과거의 경험을 일반화함으로써 현재 상황에서도 실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합리화하여, 인물의 생각이 타당한 것처럼 서술하였다.
- ㉤ ㉤ : ‘그것’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아직’은 유효하다고 주관화함으로써 현실의 변화를 인식하면서도 기존의 선택을 고수하여, 인물의 자기중심적 태도가 드러나도록 서술하였다.

<보 기>

윗글에서 서술자는 부정적 인물인 허명두에게 초점화하여 그의 내면을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허명두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일반화하거나, 주어진 상황을 주관화하거나, 상대의 생각을 헤아리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인물의 생각이 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어, 서술의 이면에 그 부정성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이 함께 있음을 보여 준다.

<보기 분석>

1. 시점은 ‘부정적 인물’인 허명두에게 초점화한, 제한적 전지 시점이다.
2. 이로써 허명두의 생각이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그저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생각일 뿐이다.
3. 이로써 서술자가 그를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CODE : 세계의 구성

㉠ ㉠ : 인물과 상대를 ‘두 종류의 인간군’으로 일반화함으로써 상대와의 인식 차이가 좁힐 수 없는 것임을 드러내어,

<어휘 보강> 일반화하다 = 단정짓다

㉠이 세상에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두 종류의 인간군**들이 사는가 보았다.
 “역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니, 나는 무식하고 먹고살기에 바빠서. 도무지 그런 얘기라는 것이…… 글썄요.”

↳ 허명두는, ‘온 씨’와, ‘허명두’가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서로 종류가 다른 인간이라 단정짓는다.

CODE : 서술자의 의도

상대와 소통이 어렵다는 인물의 생각이 타당한 것처럼 서술하였다.

↳ 이로써 ‘겉으로 보이기’로는 허명두의 생각이 타당한 것 ‘처럼’ 느껴진다.

CODE : 세계의 구성

㉡ ㉡ : 마을의 상황을 ‘싸움’으로 주관화함으로써 상대가 추구하는 ‘사리의 옳음’이 싸움에서 이기는 데에 유용하지 않음을 드러내어,

허명두 씨로서는 **마지막 안간힘을 내어 그가 일으켜 보려는 이번 싸움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온 씨의 말이 단순한 협박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그렇기는 하지만 명분이나 **사리의 옳음이란 것이 싸움에 무슨 필요가 있던 말인가.**

↳ 허명두는, 상대인 ‘온 씨’가 마지막 안간힘을 내어 일으켜 보려는 싸움에, ‘사리의 옳음’이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CODE : 서술자의 의도

인물의 생각이 타당한 것처럼 서술하였다.

↳ 이로써 ‘겉으로 보이기’로는 허명두의 생각이 타당한 것 ‘처럼’ 느껴진다.

CODE : 세계의 구성

③㉔: 상황 변화가 ‘안정’을 위협한다는 상대의 생각을 헤아림으로써 변화의 부정성을 인정하면서도

㉔전국 각처에서 찾아든 사람들이이곳 독가촌에 정착하여
그럭저럭 안정을 얻을 만하게 된 이즈음 이곳이 외부의 자본에 의해
관광지로 돼 버린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또 어느 곳으로 찾아들어
가 얼마만큼 방황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러니 두메산골이었던
곳을 피땀 흘려 오늘의 독가촌으로 개척해 온 이곳 사람들이 이
마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틀린 말일 수는 없는 것이었다.

↳ 허명두는, 갑자기 이 마을이 ‘외부 자본에 의해’ 관광지가 돼 버린다면, 이 곳 사람들이 방황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외부 자본이라는 원인으로 인해 생긴 상황 변화로, ‘안정’이 위협받을 것을 알고 있기에, 변화의 부정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CODE : 세계의 구성

무엇이 변화의 원인인지는 달랠 보아,

↳ 그리고 그 원인이 ‘외부 자본’이라고 보는 것은 ‘온 씨’(넓게 보면 마을 사람들)와 동일하다.

CODE : 서술자의 의도

인물의 왜곡된 시선이 드러나도록 서술하였다.

↳ 그러므로, 그의 생각은 다 ‘객관적인’ 상황 분석을 바탕으로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왜곡된’ 시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허명두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CODE : 세계의 구성

④㉔: ‘실리’를 추구한 측이 언제나 우위를 차지했다며 과거의 경험을 일반화함으로써 현재 상황에서도 실리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합리화하여,

㉔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해 오는 측이 항상 이겨 오고 있었던 게
아닌가. 온 씨가 찾아와서 자신에게 하였던 말을 그가 곰곰 생각해
보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제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날뛰던 시대는
서서히 지나가고 있다’는 말을 그는 물론 실감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으며, ㉔문제는 그것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지나간 게 아니라는 데
있었다.

↳ 실리를 추구하는 쪽이 언제나 이겨왔다며 과거의 경험을 일반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실리를 추구할 때라고 합리화한다.

CODE : 서술자의 의도

인물의 생각이 타당한 것처럼 서술하였다.

↳ 이로써 ‘겉으로 보이기’로는 허명두의 생각이 타당한 것‘처럼’ 느껴진다.

CODE : 세계의 구성

⑤㉔: ‘그것’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아직’은 유효하다고 주관화함으로써 현실의 변화를 인식하면서도 기존의 선택을 고수하여,

‘이제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날뛰던 시대는 서서히 지나가고 있다’는 말을 그는 물론 실감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으며, ㉔문제는 그것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지나간 게 아니라는 데 있었다.

↳ ‘그것’이 지나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유효하다면서 주관화하여 현실 변화를 인식하고 있다. 계속 기존의 선택을 고수한 것이다.

CODE : 서술자의 의도

인물의 자기중심적 태도가 드러나도록 서술하였다.

↳ 이로써 자기중심적 태도가 드러나도록 서술하고 있다.

